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봄 호 | 2016년 4월 27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오홍렬,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2016년 연합회신문 봄호 회장 인사말>

LPG판매부가가치세 면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지난 4·13 총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정권에 대해 응징을 가했다는 점에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격언은 만고의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6년 만에 만들어진 여소야대 및 3당체제 총선 결과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당 당사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대구와 광주, 영남과 호남에서도 공고한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고무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 등 상대적 박탈감과 젊은이에 대한 취업 등 정책의 부재가 심판의 잣대였음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었습니다.

금번 총선 결과는 우리 연합회의 향후 업무추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정치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20대 국회는 싸우지 않는 국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 상생과 화합의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우리 연합회는 4·13 총선이 업계 현안 문제 해결의 호기로 보고, 16개 이사장의 중지를 모아 시·도조합을 통하여 당선 유력한 여·야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다음과 같은 동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 귀 조합이 추진하고있는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연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택시 감차 보상 지원금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의견)
2. 향후 제20대 국회가 개원되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본회의에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한다.(의견)

이상과 같은 동의서는 현재 연합회에서 분류,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3월 29일에는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초청하여 개인택시업계의 현안문제 등을 담은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업계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택시문제는 공급과잉이 주요인으로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감차재원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해결 방안으로서 LPG(부탄)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대표는 현재 택시연료에 부가되는 부가세 감면법안과 택시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니 이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6월 경에는 대망의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우리 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여 통과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법안은 개정 및 폐지하고 필요한 법안은 제·개정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연합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안문제 해결에 매사 적극 협조하시고 앞장 서 주신 시·도 조합 이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중국발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여러분과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보다 더 우대받는 대출은 없을까?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이라면 신용대출보다 평균 9%p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한도 5,000만원

+



최저금리 연 5.9%

+



각종 수수료 면제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최고 5,000만원
- 금리 : 5.9~22.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48개월 중 택일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연체 이자율 : 17.9~27.9% (고객 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

대상고객 및 차종

- 은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 (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전문상담원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 차량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 송금 가능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사심의결 제160411-185746호(2016. 04. 08~06. 30)

* 신용대출 금리 비교 예시 :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2016년 1~2월 금리 기준

정책 NEWS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유병우 회장, '보상감차재원마련위해 LPG 부가세 면제 필요' 건의

김종인 대표, 국회 계류중인 부가세 감면 법안과 감차기금 조성방안 통과위해 노력 약속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초청, 16개 시·도 이사장과 함께 개인택시 업계의 현안문제를 담은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업계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유병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를 방문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신 김종인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유병우 회장은 정책현안문제로서 택시발전법을 들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문제의 근본원인이 공급과잉으로 판단해 택시의 적정대수를 위한 자율감차를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택시발전법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유 회장은 말했다. 또한 택시 감차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LPG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당대표는 선거 때마다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정치권에 전달됐지만



▲ 유병우 회장을 비롯 16개 시도 이사장과 김종인 대표가 '화이팅'을 외쳤다.

과연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회의가 끝나면서, 현재 택시연료에 부가되는 부가세 감면 법안과 택시감차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 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핵심은 경제민주화로, 택시문제도 이를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대구조합

김순락 이사장은 16만 4000대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비례대표에 공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제주조합 이치현 이사장은 택시감차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벌, 감척사업 등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정지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서 택시감차 문제도 이와 같

은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당대표는 개인택시업계의 현안문제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으니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당일 정책간담회에는 김종인 당 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성곤(강남갑) 전현희(강남을) 전원근(강남병) 김완수 조직2본부장, 김성수 대변인이 참석했다.

택시 친절 및 교통안전 향상 결의대회 캠페인 성황리에 개최

택시친절왕 포상·K스마일 MOU체결·교통사고 감소 등 결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등 택시노사 4개 단체는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 제1 세미나실에서 택시산업 종사자 약 400여명이 '택시 친절 및 교통안전 향상 결의대회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개인택시 정병호, 김인식 사업자 등 총 4명의 택시 친절왕을 선발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1인당 약 40만원 상당의 부상을 시상하고, 해당 업계에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 20명의 우수 친절기사에게도 1인당 약 4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근무하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행사참석자 일등은 전국 30만 택시산업 종사자를 대표해 대국민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수수행위 근절 등 택시산업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게 한결을 더 다가가는 택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개인·법인택시 업계에서는 본 행사에 앞서 한국관광공사 측과 K-Smile MOU를 체결하고,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국 방문 외래 관광객 급증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스마일 캠페인은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범국민적인 친절문화를 확산·정착시켜



▲ 강호인 국토부장관(우측 세번째) 유병우 연합회장(우측 첫번째).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특히 외래관광객이 입국하여 맨 처음 마주치는 관광접점이 교통부문임을 감안할 때 이번 교통단체와의 MOU체결은 K스마일 캠페인의 실천 및 확산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친절택시 종사자를 선발해 시상함으로써 친절한택시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 관광객의 눈에 불친절하다고 비춰지고 있는 한국 택시의 이미지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조합 NEWS

서울 마포 조합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나 업계 현안 건의
안 대표, 업계 고충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택시업계 현안을 건의하는 마포조합 이상배, 유종현 조합원.

서울조합 마포지구 이상배 모범운전자 회장과 유종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깜작 만남을 갖고 택시 현안문제를 환담했다.

지난 3월 15일 마포구 연남동 감나무식당에서 가진 만남에서 이들은 LPG 하이브리드 택시 도입과 택

시 감차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 가치세 감면을 국민의당에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안 대표는 비록 개인적인 만남의 형식이지만 택시 업계 현안으로 알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조합 마포지부 제공〉

경북개인택시조합 서돌식 이사장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제10대 이사장에 취임
교통종사자 연수교육에 만전 기할터



▲ 경북개인택시조합 서돌식 이사장.

경북개인택시조합 서돌식 이사장이 지난 3월 30일 개최된 2016년도 경북교통문화연수원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경북의 7개 운수단체 이사장과 경상북도 및 연수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20명의 대의원들로부터 선거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추대돼 연수원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서돌식 이사장님은 취임사에서 전임이사장과 대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고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도민의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서 이사장은 교통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인 만큼 도내 모든 교통종사자들이 '안전한 운행, 친절한 손님맞이'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도록 교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종사자들에게 불편한 연수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대의원과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에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부탁했다.

준법감사심의결(안) 제15660호 (2015. 12. 29. 기준)

SMART TAXI LOAN
개인택시 사장님을 위한
스마트택시론

신용대출 / 택시구입자금대출
최고 3천만원



지역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합과 제휴시
신용대출 최고 1천만원까지 한도 우대!



오는 8월, 서울 수서발-호남고속철도 개통 앞두고 광주조합, 개인택시 보수교육 강화, 승객맞이 준비 '끝'

광주송정역 KTX가 지난해 4월 개통된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송정역은 하루 48편의 KTX가 운행되고 1일 1만 3000명(주말 1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비롯한 여러 불편사항들이 점차 개선하며 다방면에서 노력중이다.

지난해 개통 후 송정역은 주차장 부족 문제, 접근성 문제, 택시승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와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 승차대기를 위하여 한 방향에서만 탑승하던 승차대를 양방향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승차공간을 확대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여전히 마중이나 배웅 나온 차량과 승차대기중인 택시 등으로 도착 및 출발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광주시와 지속적인 논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다가오는 8월에는 서울 수서발 고속열차(SRT) 개통에 따라 현재보다 일일 평균 이용객이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송정역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4월말 예정된 개인택시 보수교육 시 택시승강장 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승차대 외 지역에서의 승차 및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8월 SRT개통 이전에 운수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도 기울이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에서도 송정역 교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송정역사 뒤편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안전지대 및 규제봉 설치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도 추진하며 상시적인 현장 실사를 통해 집중 계도와 8월 SRT 개통 후 안정화 단계까지 교통상황과 시



▲ 광주송정역 택시승강장.

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 송정역 KTX가 개통되고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으로 더욱 많은 변화의 예견 속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행정관청의 노력으로, 운수종사자의 편의와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송정역 부근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보다 나은 여객 수송을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광주 운수종사자들의 삶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광주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제휴연회비 5,000원, 기본연회비 없음)
· 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세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권,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저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7.9%의 연체이자율 적용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수,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S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60309-105329호(2016.03.23)

미래를 함께 하는



신한금융그룹



"슈퍼맨이 집으로 돌아왔다"

-개인 취미보다는 가족을 위한 지출이 우선-



"아줌마? 화려한 싱글이라고 전해라"

-40대 싱글여성의 자신을 위한 소비증가-



"잘.완.얼" (잘나가는 남자의 완성은 얼굴)

-외모에 투자하는 남자들로 바버샵 호황-



"송년회 신년회 장소의 승자는?"

-홍대, 연남동, 상수동이 뜬다-



"응답하라! 착한 아들"

-고가의 패딩에서 실속형 패딩으로-

1등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로 2016년 새롭게 진화하는 생활

나를 위한 트렌드 분석과 예측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카드와 쿠폰 서비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 활동까지

'새로운 나'를 위한 신한카드의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신한카드의 2,200만 빅데이터!
2016년에도 고객을 위해 진화합니다

2016년, 신한카드 - 2,200만 빅데이터는 진화한다

신한 트렌드 연구소

트렌드 분석에서 예측까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분석,
새로운 Trend 발굴/예측

code9

소비자 맞춤형 카드 서비스

궁금증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고객중심의 마케팅 혁신 체계

Sally

고객에 딱 맞는 쿠폰추천 서비스

고객별 최적화된 혜택을 추천해 드리는
빅데이터 기반 쿠폰서비스

SAM2016

빅데이터 세어프로그램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노하우를 대학생과
공유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 프로그램

빅데이터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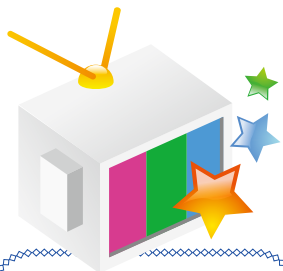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전략수립,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김관술 기자와
라이브 인터뷰

경영의 귀재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

“조합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조합원은 조합에 한없는 신뢰를 보냅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

“조합경영이 깨끗하고 투명하면 조합원은 조합을 신뢰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조합 신뢰는 조합발전에 에너지로 작용하지요”

고소·고발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부산조합을 화합조합으로 변모시킨 비결을 박권수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박 이사장은 1983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 부산조합 평조합원으로 입문, 능력을 인정받아 ▲감사 ▲이사 ▲새마을금고이사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조합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박 이사장은 조합경영의 근거리에 있으면서 1만3000여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조합원은 조합을 불신하고 조합원끼리는 갈등과 분열이 연속되면서 조합발전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1만 3000여명의 조합원을 위해서는 조합이 바로 서야 하는데…; 안타까움을 주체할 수 없어 자신이 조합발전의 중심에 서겠다는 야망을 갖고 12대 이사장 선거에 도전한다. 하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나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냉철하고 매사에 치밀한 장점을 가진 박 이사장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4년동안 철저히 준비하면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넓히기 위해 힘써 노력했다.

2010년 제 13대 이사장 선거에 재도전해 현직 이사장의 지원을 받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된다. 부산조합

경영을 긴 세월동안 생각하면서 준비해온 박권수 이사장은 2010년 7월 1일 제 13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부산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한 번의 낙선을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 화려한 부활을 한 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원들이 보내준 성원을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드려, ‘새로운 조합, 깨끗한 조합, 오직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합’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제 13대 이사장의 업무를 시작했다.

◆ 청렴 결백하면 권위가 선다

취임사를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박 이사장은 ‘공정무사하면 일처리가 밝아지고 청렴결백하면 권위가 선다’는 글귀가 담긴 액자를 벽에 걸고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6년 전 13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벽에 걸어놓은 액자 속의 글귀는 현재까지 그 자리 있어 자신에게 회초리가 되고 있다”고 박 이사장은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제 13대 이사장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추진 방향을 ‘조합 내부의 분위기 변화’부터 착수했다.

“이사장을 비롯, 임직원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항상 조합원들의 요구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살펴 조합원들이 원하는 일을 안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이유로부터 찾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으로는 ‘공정무사하면 일처리가 밝아진다’는 잣대를 대고 이사장을 비롯, 임직원 직계가족의 조합취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조합 요소 요소에 끼여있던 임직원들의 가족이 사라지고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면서 직원간의 위화감도 함께 사라져 업무분위기기도 밝아졌다.

박 이사장은 청렴결백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조합의 중요 정책은 이사회에 상정, 토론에 따른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연 100억원이 넘는 1년 예산 집행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조합의 중요 정책은 이사회를 거치고 예산 집행은 외부감사를 받는 박 이사장의 철저한 경영으로 부산조합은 그가 소망한 대로 ‘깨끗한 조합, 투명한 조합’으로 탄생했다.

◆ 예순살 청년의 열정

54세에 거대한 조합의 13대 이사장으로 취임, 4년 동안 빛나는 업적을 쌓아 제 14대 이사장에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박 이사장은 예순살의 나이에

14대 이사장 4년임기를 돌고 있다.

만학으로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박 이사장은 1만 3979대의 택시는 조합원이 각자 경영하고 조합은 1만 3979명의 조합원의 운송경영 여건을 만드는 독특한 조합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영의 귀재로 손꼽힌다.

Q 100세 시대에 60세는 청년이랑데요.

A 개인택시를 하면서 저만의 생활습관이 생겼지요. 취침은 저녁 10시에 하고 기상은 아침 5시 30분에 합니다. 기상하면 집주변을 산책하면서 하루일과를 설계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볍게 샤워를 하면서 하루일과를 정리합니다.

8시 30분에 출근해 결제와 업무지시를 하고나면 찾아오는 조합원과 외부 방문객 등 20~30명을 응대하고 대화를 합니다.

오후에는 주로 외부일정을 소화합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등을 만나고 부산시청 교통관련부서, 직영충전소 등을 방문해 외부 업무를 처리하지요. 한차례에 500명이 참가하는 조합원 교육 등을 1년에 40회 하는 일도 외부 일정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전, 오후 일정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바쁘게 일하다보니 나이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Q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선진복지조합을 만들겠다 약속하셨는데요, 복지조합을 만들려면 충전소 확충이 필요하고 충전소를 만들다보면 조합원들로부터 투서를 당하고 경찰이나 검찰청에도 불려 다녀야 될텐데요, 망설임은 없었는지요.

A 충전소는 복지사업의 꽃이라고 말하지요. 조합에서 충전소를 만들고 나면 투서를 당하는 서글픈 현실이 우리업계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조합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절대적이어서 아직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디. 아마도 그전에 투서가 성행했다면 14대 이사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이란 진기록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조합원님들이 고맙지요.



▲ 박 이사장은 부산 교통연수원에서 500명의 조합원을 모아놓고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박 이사장은 이런 보수교육을 1년에 40여차례 실시하고 친절·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조합원 의식 개혁을 불어 넣는다.

박 이사장은 인터뷰 도중 여러차례 믿음을 준 조합원이 고맙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임기 중에 3개소의 충전소를 늘려 7개로 확충했다. 조합원들의 충전거리가 단축되고나니 하루 평균 LPG판매량이 100톤에서 180톤으로 확대되고 하루 평균 직영충전소 이용 조합원도 7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었다.

충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크게 늘어 복지사업추진도 넉넉해졌다.

조합비 등 지원 확대를 위해 l당 50원씩 주던 마일리지 혜택을 80원으로 올려 1년에 60억원이 조합원에 분배되

고 ▲디지털미터기 무상장착비 10억원 지원 ▲LPG무상 지원 7억 5000만원 ▲택시요금개정수수료 전액 지원금 1억 5000만원 등이 조합원에게 분배됐다.

KT, SKT 등 2개 통신사의 대리점 활성화로 이익금을 창출, 조합원들의 개인택시 표시등을 무상으로 교체 지원했고 조합원에게 LPG 50l씩 7억 5000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지급했다.

또한 부산조합의 복지가 확대돼 조합원 지분권 재평가를 실시, 60만원의 지분을 101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년이면 40회씩 조합원에 대한 안전교육운전과 승객 서비스를 강조하는 박 이사장은 TBN교통방송에 1일 2회

친절한 개인택시 광고를 하고 전 조합원에게는 운전실명제를 실시, 친절 운전을 실현한다.

박 이사장은 부산시에 건의하여 시내 주요도로변에 19개소의 택시 승강대를 증설시켰고 대당 5000원씩 지원받는 카드결제기 보조금을 1만 1000원으로 인상해냈다.

또한 올해 8월 계약 만료되는 카드결제기 교체비용 50%를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아 조합원의 부담 없이 카드결제기 교체를 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친절한 개인택시상을 승객들에 보이기 위해 전 조합원에 상의 2벌씩을 7~8월경에 무상 보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Q 아직도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퇴직할 때 어떤 이사장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지요.

A 우리조합원께서 저를 심부름꾼으로 선택해준데 평생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아니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이사장'으로 평가되고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위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 투명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6년전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1시간이 넘는 인터뷰동안 자신이 추진한 실적과 소신을 거침없이 말하는 박 이사장을 보면서 부산조합 발전의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글·김관술)

| 부산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박우식 부이사장



강태원 이사



권영우 이사



김기태 이사



김무술 이사



김재운 이사



박대식 이사



박병준 이사



박용보 이사



박종국 이사



성효건 이사



심순목 이사



안거포 이사



윤영삼 이사



이성명 이사



이판호 이사



박윤현 감사



이규윤 감사

지부
탐방

경기조합 수원지부

촘촘한 복지제도·다양한 복지금 지급하는 등직한 복지조합

김진섭 조합장, 직영충전소 운영도 적극 검토할 터

경기조합 수원지부
김진섭 지부장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산하 31개 지부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서 지부의 명칭을 조합으로 쓰고 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수원조합은 조합원수가 3141명으로 전국 시·군 지부중 창원시와 마산, 김해, 진해시를 통합한 창원시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활기 넘치는 조합, 나날이 혁신하는 조합, 등직한 복지조합’ 실현을 목표로 수원조합원들은 합심하고 있다.

수원조합은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한 조합장과 지부장 4명, 대위원 30명, 감사 2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 조합원 위주의 조합 경영

수원조합은 행정구역에 따라 구별로 4개 지부로 나누어놓고 있지만 조합원의 모든 업무는 조합이 일괄처리한다.

지부장도 지부업무를 별도 처리하지 않고 조합에 소속되어 ▲총무 ▲교통사고 처리 ▲지도단속 등 업무별로 보직을 맡아 일하고 있다. 조합의 중요 현안은 30명으로 짜여진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 조합원 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

수원조합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조합이 소유한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후 전조합에게 간접소유권 방식으로 복지공헌연금증서를 발행한다.

수원조합은 올해 복지회관건물과 정비공장을 재평가해 51억 7300여만원 조합재산금액을 4월 1일 173만원짜리 복지공헌연금증서를 전조합원에게 교부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고 조합원이 인정하지 않는 조합은 조합 존립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뜻을 조합운영에 반영하려 보니 도전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합원들이 도조합 임대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운영경험을 축적하면서 직영충전소에 대한 소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조합원 수도 많고 자본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조합원들의 충전소에 대한 희망이 커지게 되면 직접 임대 충전소를 경영하거나 충전소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김진섭 조합장은 복지충전소 운영계획을 이렇게 밝힌다.

수원조합은 아직 복지충전소 직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1급 정비공장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대지 862평, 건평 150평 규모의 1급 가족자동차 공사 운영을 통해 간단한 정비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고장정도가 큰 경우도 시중 가격보다 50%이상 할인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 다양한 복지금 지급

수원조합은 정관에 복지금 지급에 관한 복지규정을 정해놓고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애·경사에 대한 복지금과 교통상해로 인한 위로금, 탈퇴하는 조합원 위로금까지 해당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복지금은 보험효과를 제공하는 성격의 지원이어서 어려움을 당한 조합원에게는 큰 힘이 된다.

조합은 매년 고등학생 조합원 자녀 중 성적우수학생 30명씩을 선발, 학생 1인당 25만원씩 장학금 지급도 한다. 또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20년이상 장기근속 조합원들과, 선배를 예우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65세 이상 조합원을 매년 위로 관광을 실시한다.

수원조합은 촘촘하게 복지제도를 마련, 등직한 복지조합을 만들고 있다.

종교봉사활동,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골프, 산악회 등 120여개의 크고 작은 단체가 있는 수원조합은 해마다 조합원 체육대회를 갖고 조합원들의 체력단련에도 지원을 한다.

올해 29회째 개최하는 조합원 가족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족구, 남녀계주,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골프 등 8개 종목에 17개 팀이 참가해 체력단련과 조합원과의 친목을 다진다.

◆ 지자체 재정 자원으로 택시 현대화

수원조합은 도조합과 연합하여 경기도비와 수원시청으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 택시 운행기록계, 카드결제기, 내비게이션, 브랜드콜을 추진했다.

조합원들의 운송경비절감을 위해 카드결제수수료, 통신비 지원과 조합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또한 수원조합은 운행기록계 설치지원으로 1인당 30만원씩 3140명이 9억 4200만원을 받았고 영상 블랙박스 설치비도 1인당 14만원씩 4억 396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80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받아 택시보호격벽을 설치해줬다.

(글·김관술)



▲ 수원시 신도시 중심에 세워진 개인택시복지회관. 웅장한 복지회관 건물은 수원시 조합원들의 자존심이다.



충남조합 부여지부

‘전 조합원 자원봉사참여로 화합하는 조합’

사무실, 조합원 휴게실, 정비공장 등 자체건물 소유한 탄탄한 지부

700년 역사를 가진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군에는 찬란한 백제문화가 숨쉬는 백제문화단지가 있는 관광도시다. 더구나 백제문화단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지로 등재된 유서 깊은 지역이다.

백제문화단지를 거점으로 택시운송업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하루운송수입은 농촌지역이지만 10만원 선을 유지한다.

4191대를 보유한 충남조합에는 천안시를 비롯 8개시와 7개군 지부가 있다. 142대를 보유한 부여군 지부는 조합원 규모로 보면 11번째로 하위그룹에 속하는 작은지부다.

하지만 조합원 전원이 자원봉사단체인 쉼터회에 가입, 화합으로 단합되어 부

여지부는 실속있고 탄탄하게 지부를 운영한다.

◆ 전 조합원이 봉사활동에 참여

4부제로 운영하는 부여지부는 전 조합원이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해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조합원 단결이 잘 되고 있는 부여지부도 한때는 조합원들이 분열돼 있었다. 직선제로 뽑는 지부장 선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로 분열되고, 당선된 지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답보 상태였다.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여지부가 화합하는 지부로 바뀐 것은 전

조합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이종도 지부장은 말한다.

화합하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부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종도 지부장은 2013년 1월 1일 취임, 지부 변화를 견인했다. 이 지부장은 화합의 중심점을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전제로 한 쉼터회를 조직하고 전조합원이 참여하도록 권유하면서 다독였다.

초기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원봉사활동을 거부하던 조합원들이 하나 둘 가입하다 전원 가입이 달성됐다. 쉼터회원들은 관광유적지 청소와 터미널 등 군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청소를 하기도 하고 능수시험일이나 장애인 행사 때는 전원이 차량봉사로 돕다 보니 쉼터회 평판이 주민들의 입에서 착한택시로 회자됐다.

◆ 사무실 건축

재정이 열악한 부여지부는 2014년까지는 셋방살이를 했다. 쉼터회 자원봉사활동으로 지부가 변모하자 이 지부장은 자체 사무실 건축에 박차를 한다.

사무실 신축 부지는 부여 공남주유소 김영환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받아 확보하고 건축비는 충남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부여시청도 흙, 자갈, 모래, 보도블럭 등 건축자재와 덤프트럭, 굴착기 등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 지부장과 조합은 자부담 1500만원으로 사무실, 조합원 쉼터와 차량정비공장 신축을 해냈다. 비록 단층짜리 건물이지만 쓸모있게 3동이 나란히 건축됐다.

준공식에는 이 군수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 부여군청과 win-win관계 설정

부여지부 조합원이 전원 참가한 다양한 지역 자원봉사활동은 부여군청과 윈-윈 시대가 열려 군청의 재정지원으로 많은 택시현대화가 추진됐다.

부여군청은 2013년 4월 택시미터기 장작재원으로 3976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충남조합 부여지부 이종도 지부장



▲ 2014년 부여지부 사무실, 휴게실, 정비공장 준공식에는 이용우 부여군수를 비롯한 내빈 조합원이 참석했다.



▲ 142명의 조합원의 쉼터와 휴게실. 조합원들의 동호회 모임단체가 이곳에 입주해있다.

2014년 7월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비용으로 1억 2350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 9월에는 블랙박스 설치 비용으로 2억 8400만원, 2015년 10월에는 승객안심귀가 알림장치 재원으로 1420만원을 지원하여 조합원들은 20%만 부담했다. 현재 수동으로 조정하는 시계할증료 계산을 도비지원 1억 2496만원을 받아 설치했다.

또한 부여군으로부터 콜센터 관제시스템 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다.

이밖에도 부여군청의 지원을 받아 택시승강장 4개소를 늘려 조합원들의 운송여건을 개선했다.

부여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생 등·하교를 돕는 ‘통학 택시’ 운행도 추진하고 있다.

부여군지부는 이종도 지부장의 노력으로 부여군으로 1개월 2만 5000원을 받는 택시부착 광고비를 3만원으로 인상, 광고비 수입으로 조합비를 받지 않고 조합운영비와 유급직원 인건비까지 해결하는 알뜰한 경영을 한다.

(글·김관술)

2016년 1/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콜버스” 운행금지 및 승합택시 활성화 건의

□ 최근 서울 강남, 서초 등 일부지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세버스를 호출하도록 하고, 승객을 목적지 부근 버스 정류소까지 운송하는 일명 “콜버스”가 무료 시범서비스 중에 있어 동 서비스의 확대에 인한 택시 업계 침해 및 여객운송질서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택시 노·사4단체는 공동명의로 성명서(2016. 1. 18)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각종 언론에 택시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성명서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콜버스” 운행 반대!!!
규제개혁을 명목으로 한 불법영업 합법화 반대!!!

최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세버스를 호출하도록 하고 승객을 목적지 부근 버스 정류소까지 운송하는 일명 “콜버스”가 무료 시범서비스 중에 있다.

또한 지난 1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신 교통·물류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미래산업 조찬 간담회에서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함으로써 전세버스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규제개혁 또는 신산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명백한 불법영업, “콜버스” 운행 즉각 중단하라!!

전세버스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정부기관, 학교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시설 등과의 운송계약 외에는 이러한 정의를 벗어난 영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업으로써, 1개의 계약 주체와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하여야 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콜택시와 차별되지 않는 콜영업 방식, 요금 수수방법 등 또한 “콜버스”의 불법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현재 심야시간에 무료서비스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콜버스”가 합법화 될 경우 공급과잉 되어 있는 전세버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운행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이 경우 택시업계에 대한 업계침해는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버스와도 중복되어 교통행정의 혼선 및 여객운송질서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전세버스의 업역확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산업단지에서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영을 허용하면서 택시업계 및 버스업계의 동의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매년 통근용 전세버스 운영 대상 산업단지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최초 9대 산업단지에서 39개 산업단지로 확대된 상황으로, 해당지역 택시운송사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버스의 업역확대는 택시 및 버스운송사업의 영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게 됨은 물론 여객운송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써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여객운송사업 간의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장관께서 규제개혁을 통한 “콜버스” 운행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 “콜버스”의 운행 금지를 촉구한다.

◆ “콜버스” 운영 금지, 관련 법령 보안을 촉구한다!!

최근 공유경제를 표방한 “우버”의 국내 서비스로 인해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우려한 국토교통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영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버스”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우버”의 서비스 재개를 금지한 명분이 되새길 뿐만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형 대여자동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객운송행위 등 유사한 형태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금지할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해 “콜버스”의 운영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의 보안을 통해 유사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의 “콜버스” 합법화에 대응하여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4단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택시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언론을 통한 “콜버스” 불법영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일 정	추진 사항
2016.2.1	• 조선일보 “창조경제의 미명하에 택시업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6.2.2	• 문화일보 “무분별한 규제개혁으로 택시업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6.2.3	• 동아일보 “무분별한 규제개혁으로 택시업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6.2.4	• 교통신문 “무분별한 규제개혁으로 택시업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 또한 택시 노·사4단체는 “콜버스”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임에도 복수의 이용자들이 각각 일정한 구간을 이용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요금을 개별적으로 지불함으로써 복수의 운송계약에 해당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다고 사료됨으로 “콜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한정면허로 “심야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신설하고 면허업종인 택시운송업계에서 10인승 이상 13인승 미만 대형택시(승합택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승합택시 활성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2016. 2. 11)하였다.

콜버스 관련 승합택시 활성화 건의

◆ 현 황

- 2015년 말부터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집하여 운행
-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대에 택시 이용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전세버스와 이용승객을 중개하고 여객을 운송하고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을 합산하여 요금 수수
- 전세버스를 이용한 개별 이용승객 수송으로 불법성 논란 야기

◆ 문제점

- 콜버스는 복수의 이용자들이 각각 일정한 구간을 이용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개별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콜버스 운영주체가 운송계약 일방 당사자가 되어 운송사업자인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운영요건인 “1개의 운송계약”에 위배
- 또한 콜버스는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콜버스 운영주체 또는 해당 사업에 이용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여객운송행위에 해당
- 또한 법률에서 정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도록 지역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 일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 운영주체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콜버스와 같은 전세버스와 이용자 간의 중계서비스를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할 경우 이와 유사한 여객운송수단의 출현을 막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택시·버스 등 개별 여객운송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엄중 구분이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질서가 붕괴
- 현재 콜버스가 스스로 시간적 지역적 한계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합법화할 경우 주간시간 영업뿐만 아니라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장거리 영업 신설 등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
-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를 이용한 신산업 발굴로 여객운송수단의 이용승객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여객운송산업과의 조화와 균형·발전이 가능한 범



장거리, 장시간주행이 많은 TAXI일 수록 견고한 BODY는 필수입니다 2017년형 쏘나타 TAXI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
쏘나타는 **최우수 등급 TSP+** 를 받았습니다
쏘나타 택시, 안전성으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SONATA

최상의 안전성을 위해

초고장력강, 핫스탬핑
부품확대로 강해진 BODY



- 7 에어백시스템 · 충격저감시트(일좌석) · 사시통합제어시스템(VSM)
- 시트벨트 안전장치 ·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해

운전자의 움직임에 따른
인간공학적인 설계



- 조작감이 우수한 스티어링 휠 · 쉽고 감성적인 즐거움을 주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적인 실내
- 열선/통풍기능과 4Way 램버썬포트(운전석 적용) ·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안정적 퍼포먼스를 위해

동급 최고수준의 R&H 성능을
통한 균형잡힌 주행감성



- 후륜 듀얼로어암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 / 전륜 맥퍼슨 스트럿 타입 서스펜션
-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 언더커버 · 누우2.0LPI엔진

위 내에서 시행됨이 타당

◆ 건의사항

- “심야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신설
 - ▶ “콜버스” 운영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붕괴를 초래하므로 한정면허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심야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신설
 - ▶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통해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을 제한
- 10승 이상 13인승 미만 대형택시(승합택시)로 대체
 - ▶ 전세버스의 “콜버스” 영업은 전세버스 본연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
 - ▶ 따라서 “심야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전세버스 및 마을버스 등 등록업종을 배제하고 면허업종인 택시운송사업이 대형택시(승합택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 이를 위하여 10승 이상 13인승 미만 대형택시(승합택시)의 요금규제 및 합승규제를 대폭 완화
- 10승 이상 13인승 미만 대형택시(승합택시)를 이용한 “심야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즉시 도입하고 요금규제 완화 등 하위법령 정비시까지 단속 유예

2 “전기 자가용차” 택시영업 허용 적극 반대

■ 최근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공유경제, 규제개혁 내용에 전기 자가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택시영업을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허용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시 노·사4단체는 공동명의로 성명서(2016. 2. 19)를 작성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자가용자동차 택시영업 허용 검토에 대한 택시업계 입장” 관련 성명서를 제출하고 각종 언론에 택시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성명서

전기 자가용자동차 택시영업 허용 결사 반대!!!
창조경제 미명하에 자행되는 택시 말살정책 반대!!!

지난해 6월 자가용자동차 및 렌터카의 유상운송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가 자가용 또는 렌터카의 유상운송행위를 중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택시영업을 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우버”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버”로 인한 여객운송질서 붕괴를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으로 동 개정법률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또한 그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

◆ 손바닥 뒤집기 식 정부정책 변경,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하였던 정부가 최근 전기 자가용자동차의 도입 확대를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제주도에서 전기 자가용자동차의 택시영업을 허용하고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일반 자가용자동차의 택시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우버”를 금지하는 입법에 적극 찬성했던 정부가 이처럼 1년도 안되어 그 입법취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정부정책이 이처럼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한탄스럽다.

◆ 자가용자동차 택시영업,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택시운송사업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요건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여객운송업에 대한 면허제도는 각종 규제와 통제 속에 여객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산업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우리 교통정책은 이러한 엄격한 면허제도 속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아무런 자격요건도 사업요건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객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강력범죄자, 마약복용자 등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전기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조건만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자들을 규

제할 최소한의 장치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가?

◆ 창조경제 미명하에 졸속행정, 국민 기초경제 붕괴된다!!

또한 죽어가는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택시발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아무런 통제도 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공유경제,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이처럼 앞뒤도 맞지 않는 정책을, 기존 산업질서와 산업기초와의 관계는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갈등 등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부 일방의 판단에 따라 밀어 붙이 것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론 성과 제일주의식 졸속행정으로 국민 기초경제가 고사되고 있는 것이다.

◆ 전기 자가용자동차의 택시영업 허용,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택시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어떠한 자가용자동차라 할지라도 택시영업이 허용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국토교통부는 다양화된 여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추가하여 대형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2016. 02. 23) 하였으며,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4.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 6. (생략)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5. · 6. (현행과 같음)
[별표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관련) 3. 승용자동차	[별표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관련) 3. 승용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현행	개정
라. ~ 마. (현행과 같음)	라. ~ 마.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 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차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허용하고, 기존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
- ◆ 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
 -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 자동차의 종류 확대
 -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

안전한 택시 캠페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카카오와 업무제휴 · 범인에 대한 정보 택시에 전송
지적장애인 · 치매환자 찾아주기 운동도 함께 전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2016년 3월 8일부터 (주)카카오와 손을 잡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중인 범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 관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거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려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도움을 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경기도 안산에서 이틀여 간의 밤샘수색에도 찾지 못했던 3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메시지 전파 50여분 만에 기사님의 제보로 발견해 가족의 품에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께는 경기남부경찰청 장께서 직접 안산을 찾아 감사의 뜻으로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해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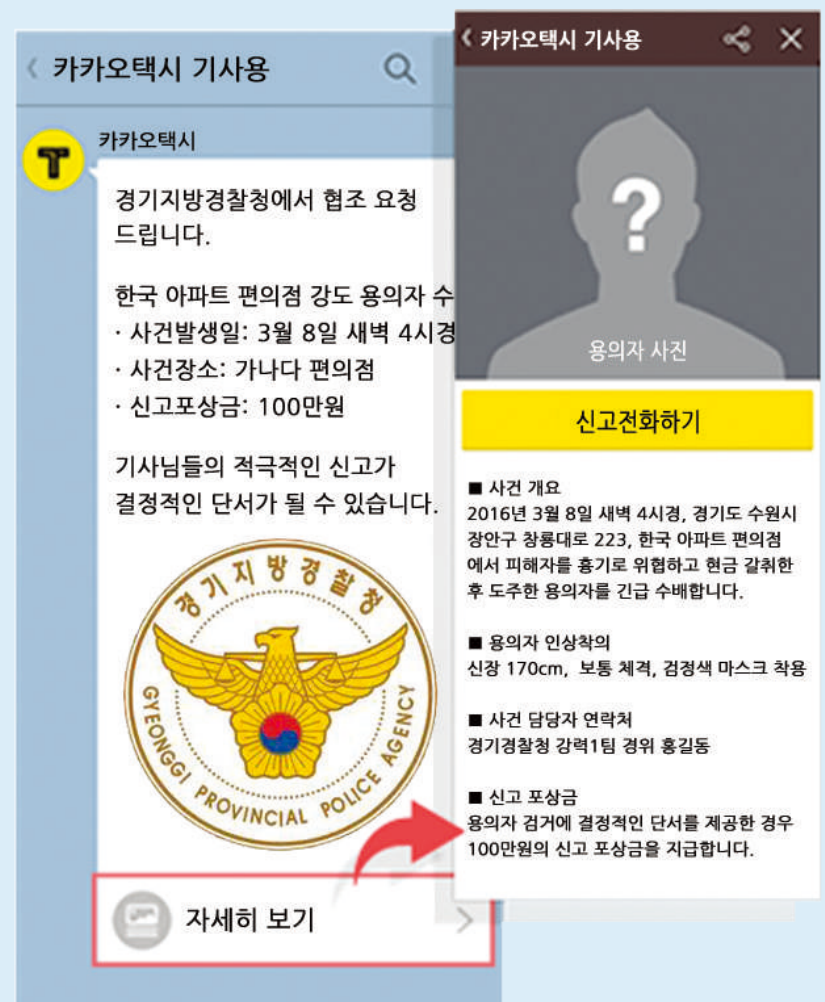
거리 곳곳을 누비는 기사님들의 치밀한 네트워크가 드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었고,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해드리게 될 내용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카카오택시 동보메시지 운용도〉



- 담당형사 · 관할서 바로 제보하기 가능
- 신고보상금, 감사장 등 수여
- 신고전화 등 참여시 기념품 증정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공제조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실시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설립놓고 갑론을박 열띤 토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및 보험사기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관련하여 2016년 3월 29일 자동차공제협의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자유토론 시간에 오는 6월 개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기능과 겹치는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 낙후로 피해자의 불만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문철 스스로닷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진흥원은 조합에 보고서 제출 요구, 개선 명령, 임직원 제재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이는 국토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공제조합 관리감독과 다르지 않은데, 기능이 중복될 경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이치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주조합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 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돼 있

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이고자 한다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식 국토부 사무관은 "진흥원이 설립되면 국토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2014년 사고율이 20.8%에서 2015년 21.6%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제조합의 경영수지에 바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에서는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고예방활동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인증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무사고 운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매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증가 추세로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이며 관련 혐의자는 8만 3431명으로 전년(5997억원, 8만 4385명) 보다 금액은 552억원 증가(9.2% 증가)했다.



▲ 공제조합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6명의 연사가 출연,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

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보험사기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르신 안전하세요?

어르신 보호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주름을 만드는 것은 세월 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키워낸 사람, 어르신

잠시 기다려 주는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공제조합 경영종합분석회의(부지부장회의) 개최



▲ 유병우 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공제조합경영종합분석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공제지부 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회장 유병우)는 지난 3월 22일 10시부터 공제조합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공제운영 현황 및 손해율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5년도 경영종합분석 회의(부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16개 지부 부지부장들과 본부 실장들이 참석했다.

회장의 훈사와 2015년 우수지부에 대한 시상도 있었으며, 2015년 주요 경영실적 보고 및 지부별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후 본부 각 실별 중요 강조사항 및 전달사항이 이어졌고 회의는 오후 4시가 되어야 종료됐다.

작년 경영실적 등을 고려한 지부별 발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 경북 부지부장의 순서로 이뤄졌다.

공제계약 현황, 손해율 현황, 사업비 절감방안, 추산관리, 미결감소 방안, 간접손해 절감 방안, 입원환자 감소 방안, 수입차량 관리 강화, 피소율 감소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제경영의 지속성을 추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지부별 공제특성에 따라 조합원, 피해자, 직원이 만족하는 공제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올해는 공제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 공제분담금 할증률 인상

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율 1%를 줄이고자 안전운전 365일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발생 되었던 3098건의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3355건으로 증가하였다.(자동차공제계약 대상)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라 함은 이른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②항 '신호, 속도, 건널목 통과방법, 횡단보도, 앞지르지 방법 또는 금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뜻하며, 예기치 못해서 일어나는 일반사고와는 달리 운전자의 안전부주의가 사고의 주요원인이다. 이는 일반교통사고에 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 발생으로 지급되는 공제금은 1 사고당 평균공제금 802만원으로써 일반교통사고로 지급하는 412만원에 비하여 194.8%의 더 많은 공제금을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공제사업 경영에 대한 적자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 전체에게는 공제분담금 인상의 현실을 초래되고 있다.(2012~2014년도 자동차공제조합 지급공제금 평균값)

그래서 자동차공제조합은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유도하며, 공제분담금 인상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들어,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가 발생한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갱신할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공제분담금 특별할증률 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변경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시행일은 2016년 4월 1일자 책임개시일 공제계약부터 용된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께서는 자동차공제 갱신 계약 적용분담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상식

흡연만큼 좋지 않는 습관 6가지

나쁜 생활습관만 고쳐도 건강한 생활 유지 가능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이요법이 중요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는 습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다. 그런데 흡연만큼 건강에 좋지 않는 생활습관이 많다. 건강에 좋지 않는 생활습관을 지속하면 몸에 무리가 올 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습

관이 미래의 건강을 책임지므로 쉬이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여기 전문가의 조언이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모아 흡연만큼 몸에 나쁜 생활습관들과 해결책을 소개한다. 여기에 적혀진 생활습관 가운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 고치려고 노력해보자.



1. 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습관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매년 흑색종 등의 피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런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15분 전에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 모두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시간이 지나면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수시로 덧발라줘야 효과가 유지된다.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SPF수치 및 PA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피부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 선택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효과에 대해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운동을 거르는 습관

운동을 거르는 행동은 흡연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운동을 거른 사람 10명 중 1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거의 같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집에 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3. 체중이 늘어도 내버려두는 습관

몸무게가 0.5~1kg 정도 늘어나는 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내버려두면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15세 이전에 비만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망 위험이 2배나 더 높았다. 심지어 이런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졌다.

따라서 건강한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4. TV나 스마트폰 등을 보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습관

디지털제품의 발전에 따라 TV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시도때도없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일정시간 TV나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연구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 TV를 보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TV나 스마트폰을 제한없이 오래보는 습관은 좋지 않다. 디지털제품을 다루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5. 직장에서 너무 멀리 살고 있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사람들은 올바른 식사나 운동, 수면 등 건강한 습관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만일 지금 당장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6. 너무 오래 자는 습관

수면 부족이 체중을 늘리거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잠을 자는 습관도 건강에 좋지 못하다.

수면 과다는 심장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8시간이다. 만일 평소에 9시간 이상 자고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면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좋다.

과다수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졸린 느낌이 들어도 가벼운 맨손체조나 산책을 하면서 몸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다.

택시 전용차 신차 출시 특집

기아자동차는 지난 1월 2세대 완전 변경모델 신형 K7를 출시했다. 현대자동차도 4월 20일부터 운전자 편의사항을 대폭 강화한 2017형 쏘나타 판매에 나섰다.

16만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선택을 돕기 위해 연합회 신문은 제 1부 현대·기아자동차, 제 2부 삼성 르노, 한국 GM으로 나누어 신차 특집 기사를 봄호와 여름호로 나누어 마련했다.

- 현대자동차 -

현대차, 2017 쏘나타 택시 출시

중형시장의 절대 강자 2017 쏘나타 택시 출시

강건한 차체에서 나오는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감이 특징

현대자동차(주)는 4월 20일부터 운전자 편의 사양을 대폭 적용한 2017 쏘나타 택시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출시한 현대차 쏘나타 택시는 강건한 차체에서 나오는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감과 정교한 핸들링, 탁월한 정숙성 등 주행과 관련된 모든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 올렸다.

택시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최단 시간 내 4만대 판매 돌파를 앞두고 있는 베스트 셀링카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2017 쏘나타 택시는 운전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티 언락'을 기본 적용 하였으며, 운전자 편의 증대를 위해 'LED 주간 주행등(LED DRL)',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선택 사양으로 적용 되었다.

기존에 프리미엄 사양에만 적용되던

'LED 주간 주행등(LED DRL)'은 전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인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가격 인상 없이 7인치에서 8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어 상품성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성까지 높였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뛰어난 주행 성능은 물론 운전자 편의성이 개선된

2017 쏘나타 택시는 기사님

들과 승객의 만족도까지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형택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판매

돌풍을 일으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2017 쏘나타 택시의 가격은 ▲스타일(AT) 1800만원 ▲모던 1990만원 ▲프리미엄 2220만원이다.



◆ 2017 쏘나타 택시 특징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중 모든 상황을 보호하는 바디

차체가 초고장력강, 핫스탬핑, 부품 확대로 안정성과 견고함을 늘렸다.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VSM)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위험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 운전석/동승석 하체 상해 저감장치(EFD)를 포함한 시트벨트 안전장치는 사고 시 승객의 몸을 신속하고 단단하게 잡아주어 상해를 최소화하고, 7개의 에어백으로 다양한 운전상황에서 탑승객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한다.



인간공학적 실내로 승차감을 높여 편안함 증대

손에 착 감기는 스티어링 휠, 열선/통풍시트와 허리 피로감을 줄여드리는 4Way 럼버서포트 기능을 운전석에 적용해 오랜 운전에도 쉽게 지치지 않도록 한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8인치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택시 운전자를 위해 세심하게 최적의 조작 거리를 고려해 스위치류와 화면을 배열했다. 이때문에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편안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위한 파워와 코너링

쏘나타 택시는 누후 2.0 LPI엔진을 사용했다. 또한 후륜 듀얼 로어암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전륜 맥퍼슨 스트럿 타입 서스펜션으로 높은 응답성과 쏠림 방지를 구현했다. 6단 자동변속기는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밖에도 핸드 파킹 브레이크,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언더커버가 최상의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 기아자동차 -

ALL NEW K7 TAXI 택시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다

한차원 높아진 품격과 상품성으로 준대형 택시 면모 갖춘 K7 택시

기아자동차는 올해 1월 2세대 완전변경 모델 신형 K7을 출시했다. 출시하자마자 1분기 준대형 세단시장에서 최강자의 자리에 등극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승용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개인택시 시장에서도 K7 택시는 신형 K7 택시 출시 효과로 1분기 시장점유율 1위(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택시 기준)에 오르는 등 판매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신형 K7 택시의 인기비결은 한차원 높은 '격'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준대형 택시라는 상품컨셉으로 개발된, 고급스럽고 카리스마 넘치는 혁신적인 스타일의 7년만의 풀체인지 신차라는 점이다.

신형 K7 택시는 동급 최대 휠베이스(2,855 mm) 및 넓은 실내공간을 가지고 있다.

초고장력 강판 51% 확대 적용, 앞좌석 스마트 에어백, 운전석 무릎에어백 등 안전성도 강화했다.

흡차음재 최적화, 이중접합 차음유리

등 최적의 NVH 대책 구현으로 차원 높은 정숙성을 실현했고, 파워/히티드/통풍/전동익스텐션 시트, 전동식 허리지대 등 적용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시트를 제공한다.

내비게이션이 75만원, 전석 컨비니언스 80만원 등 옵션사양 가격도 합리적이다.

또한 LPI 시동대기 단축시스템/스마트 에어백/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운전석 파워시트/앞좌석 스마트 히티드 시트/LED DRL 등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분화하여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신형 K7 택시는 디럭스와 럭셔리 등 2가지 트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디럭스 2,495만원(개인택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시 가격은 22,681,818원), 럭셔리 2,765만원(개인택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시 가격은 25,136,364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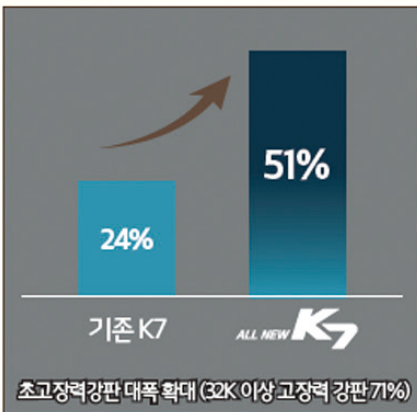
한편,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7월에 출시한 신형 K5 택시도 차가 정말 좋아졌

다라는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K5 택시에 대한 판매기대감과 자신감도 내비쳤다.

신형 K7 택시의 판매돌풍 여세와 더불어 K5 택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올해 개인택시 시장에서 기아자동차의 선전이 예상된다.



◆ 기아 K7 택시 특징



최적의 NVH 대책 적용으로 수준 높은 정숙성 구현



에어백 (운전석/동승석 스마트 에어백, 운전석 무릎)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최적화된 설계로 구현된 차원 높은 승차감 및 핸들링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 (TPMS)



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 상시사양 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 인내문에 수록된 제품 색상 및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택시론



Sh 수협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스마트택시론' 출시

수협은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인 '스마트 택시론'을 지난 1월 12일부터 수협상호금융 90개 회원조합 435개 영업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신용대출과 차량을 담보로 택시구입시 최대 3

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한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지역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과 수협회원조합간 제휴 협약 체결시 신용대출에 한해 1000만원까지 우대한도가 적용되어 최고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대출기

간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있어 자금활용계획 수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협 관계자는 "기존 택시대출의 경우 1금융권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했고 2금융권의 경우 캐피탈 및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웠으나 본 상품 출

시로 인해 개인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스마트 택시론' 판매실적에 따라 추후 개인택시 사업자 대상 주택 담보대출 우대 등 금융상품간 교차판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 종일 운전하는 남편이 위험하진 않을까”
 “좁은 공간에 오래 계시는 아버지가 불편하진 않을까”

안심해요, K7이니까

초고장력 강판 51% + 운전석/동승석 스마트 에어백 + 퍼스트클래스급 운전석

ALL NEW K7 TAXI 탄생



The Power to Surprise

▶ 더욱 강력해진 안전사양



초고장력 강판 51%



에어백 (운전석/동승석 스마트 에어백, 운전석 무릎)

▶ 더욱 프리미엄해진 편의사양



앞좌석 통풍 시트



스마트 트렁크 (풀오픈 시스템)



스마트 히터드 시트



LPI 시동대기 시간 단축 시스템 (LSTR)

LPI 시동대기 시간 단축 시스템(LSTR)이란?

풀당키 또는 스마트키 언락버튼 2회 작동시 연료 펌프를 미리 구동시켜, LPI시동 대기시간 단축으로 가솔린 엔진 수준 시동성 확보 * 배터리 방전 방지 위해 Unlock버튼 1회 작동시에는 (단순 도어 오픈으로 가정) LSTR 미작동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7 3.0 LPI 자동6단(7인칭) 타이어: 복합연비 7.4km/ℓ (도시 6.2km/ℓ, 고속도로 9.5km/ℓ) | 배기량 2999cc | 공차중량 1640kg | 복합CO₂ 배출량 180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친환경 경제로전으로 연비는 높이고, 기름값은 아끼고

AUTO Care Service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Care Service
 기아자동차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